

양현종, 선발 경쟁력 충분히 뽐냈다...체력 저하는 속제

양키스전 선발 등판 5 1/3이닝 3피안타 삼진 2개 5회까지 무실점 투구 이어가다 6회 2실점 '고전'

상대 투수의 노히트 노런 피칭에 가려졌지만 양현종(33·텍사스 레인저스)은 충분히 제 몫을 했다. 양현종은 20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의 글로브라이프필드에서 열린 2021 메이저리그(MLB) 뉴욕 양키스와의 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5 1/3이닝 3피안타 2실점을 기록했다. 볼넷 4개를 내줬고, 삼진 2개를 잡았다. 빅리그 선발 데뷔전이었던 6일 미네소타 트윈스전에서 3 1/3이닝 동안 8개의 삼진을 잡아내며 4피안타(1홈런) 1볼넷 1실점을 기록했던 양현종은 빅리그 데뷔 후 가장 긴 이닝을 소화했지만, 퀄리티스타트(선발 6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까지 달지는 못했다. 기대했던 MLB 데뷔 첫 승은 다음으로 미뤄졌다. 5회까지 무실점 투구를

이어가다 6회 2점을 내준 양현종은 팀이 0-2로 뒤진 6회 1사 1루 상황에 마운드를 내려가 패전 위기에 놓였고, 텍사스가 그대로 패배하면서 데뷔 첫 패전을 기록했다. 양현종은 총 투구수 74개였고, 스트라이크는 39개를 던졌다. 포심패스트볼(47개), 체인지업(28개), 슬라이더(22개) 등 3가지 구종을 주무기로 양키스 타자들을 상대했다. 본인 스스로 가다겠다고 했던 커브는 3개 구사했다. 양현종의 포심패스트볼 평균구속은 89.7마일(144.3km)로 90마일(144.8km)에 채 못 미쳤다. 하지만 상황에 맞는 볼 배합과 각 잡힌 제구로 아직은 자신의 투구가 생소한 양키스 타자들을 괴롭혔다. 삼진과 더블 플레이를 뺀 11개의 아웃카운트 중 8개가 땅볼에서 나왔

다. 병살타를 유도한 3개의 공은 모두 체인지업이었다. 현재 텍사스는 선발 로테이션이 붕괴되면서 아메리칸리그 서부지구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1선발 카일 김슨(3승 무패 평균자책점 2.32)만이 분투할 뿐 나머지 선수들은 크고 작은 부진에 시달리는 중이다. 양현종은 두 번째 선발 등판에서 5이닝 이상을 큰 굴곡 없이 책임지면서 향후 선발로서의 경쟁력을 충분히 뽐냈다. 투구수도 74개로 관리가 잘 됐다. 다만 일정 투구수가 넘어가면 눈에 띄게 힘이 떨어지는 모습은 보완점으로 꼽힌다. 양현종은 이날도 5회까지는 갈끔투를 선보이다가 6회 들어 고전했다. 좀 더 긴 이닝을 무난하게 소화하려면 후반에도 구위를 유지해야 한다. 자리를 보장 받지 못한 채 시즌을 맞이한 여파일 테지만, 어쨌든 양현종이 스스로 이겨내야 한다.

뉴시스



양현종(텍사스 레인저스)이 19일(현지시간) 미 텍사스주 알링턴의 글로브 라이프 필드에서 열린 2021 메이저리그(MLB) 뉴욕 양키스와의 홈 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2회 투구하고 있다. 양현종은 0-0으로 맞선 5회 현재 무실점 호투하고 있다.

김연경, 국내리그 떠난다...차기 행선지는 중국 상하이

“큰 틀 합의...세부 조율 중” 2017~2018시즌 뛰었던 팀

‘배구 여제’ 김연경의 차기 행선지는 중국 상하이이다. 김연경 에이전트는 19일 “김연경이 중국 상하이팀과 큰 틀에서 입단 합의를 마쳤다. 조만간 세부 내용 조율을 마치고 공식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11년 만에 흥국생명으로 복귀해 V-리그를 뜨겁게 달궜던 김연경은 통산 4번째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라는 업적을 남긴 채 다시 해외로 향하게 됐다. 상하이는 김연경에게 익숙한 팀이다. 김연경은 일본과 터키를 거쳐 2017~2018시즌 상하이로 이적해 팀



의 정규리그 우승과 챔피언결정전 준우승을 견인했다. 김연경의 상하이 입단은 최근 급물살을 탄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해외팀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았던 김연경이 상하이를 택한 배경에는 차기 시즌 중국리그 일정이 짧게 진행될 수도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뉴시스

김연경 “마지막 올림픽, 메달로 마무리 하고파”

25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VNL참가...올림픽 전초전

국내를 넘어 세계 여자배구계를 대표하는 스타인 김연경(흥국생명)에게 올 여름은 특별하다. 어쩌면 본인의 마지막 올림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연경은 19일 대한배구협회를 통해 “도쿄올림픽이 마지막 올림픽이 될 것으로 생각하기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것이다. 메달로 마무리를 좋게 하고 싶다”는 각오를 드러냈다.

10대 시절부터 두각을 나타낸 김연경은 2000년 중반부터 현재까지 한국 여자배구 역사의 중심에 서있다. 이중에는 두 차례 올림픽도 겪어왔다. 2012년 런던 대회에서는 4강 진출에 기여했고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대회에서는 8강행을 이끌었다. 어느덧 만 33세의 베테랑 선수가 된 김연경에게 도쿄는 마지막 올림픽이 될 수도 있다. 의미가 남다른 수비에

없다. 김연경은 “선수촌에 있는 올림픽 디데이 계산기가 하루하루 줄어드는 것을 보며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실감한다”면서 “아직 올림픽 개최와 관련해 어수선한 부분이 있어 조금 걱정이 되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근황을 소개했다. 김연경은 동료들과 함께 25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이탈리아 리미니에서 열리는 2021 발리볼네이션스리그(VNL)에 참가한다. 자연스레 올림픽 전초전 성격을 지닌 대회다. 김연경은 “일정이 타이트해 조금 걱정이 되지만 15명의 선수가 가니 충분한 로테이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도쿄올림픽을 준비해나가는 과정이니 열심히 하고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정지윤, 이다현(이상 현대건설) 등 2000년대생 어린 후배들을 두고는 “젊은 선수들의 파이팅에 대표팀 분위기가 좋다. 팀에 분명 좋게 작용하고 있다. 어린 선수들이 대표팀에 들어오는 것을 보니 뿌듯함을 느끼고 있다”고 칭찬했다.

뉴시스

프로농구 ‘41살 베테랑’ 김동욱, KT행

허일영, SK와 3년 3억원...신인왕 출신 정성우도 이적

우리나이로 41살인 베테랑 김동욱(40)이 서울 삼성을 떠나 부산 KT에 둠지를 튼다. 고양 오리온의 베테랑 슈터 허일영(36)도 새롭게 서울 SK 유니폼을 입는다. KT는 20일 김동욱과 계약기간 2년, 첫해 보수 총액 2억3000만원(연봉 2억원·인센티브 3000만원)에 계약했다고 전했다. 허일영은 3년, 보수 총액 3억원(연봉 2억4000만원·인센티브 6000만원)이다. 마산고~고려대를 졸업한 김동욱은 2005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2라운드 4순위(전체 14순위)로 삼성에 입단했다. 주축 포워드도 성장한 2011년 12월 가드 김승현(은퇴)과 트레이드로 고양 오리온으로 이적했고, 2015~2016시즌 오리온의 챔피언 등극에 일조했다. 이후 2017년 FA를 통해 친정 삼성에 복귀해 지난 시즌까지 활약했다. 194cm의 신장에 정확한 슈팅과 센스를 갖춘 포인트 가드를 대신해 팀의 공격을 조율하는 등 ‘포인트 포워드’로 불렸다.

1981년생, 우리나라로 41살이지만 지난 시즌 삼성 전력의 핵심이었다. 정규리그 전 경기(54경기)에 출전해 평균 20분20초를 뛰며 5.8점 2.7어시스트 2.2리바운드를 기록했다. 경기운영과 슈팅에서 강점을 보였다. 특히 3점슛 성공률 부문에선 43.9%로 전체 1위를 차지했다. 이번 계약으로 2022~2023시즌, 43살까지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계약 기간을 채우면 총 16시즌으로 주희정(20시즌·고려대 감독), 오윤종(17시즌·KT)에 이어 김주성(16시즌·DB 코치)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한 관계자는 “서동철 KT 감독과 김동욱은 과거 삼성, 오리온에서 코치와 선수로 함께 한 인연이 있다. 경험 많은 선수를 원했던 KT와 은퇴 전 뚜렷한 성적을 올렸던 김동욱의 조건이 맞았다”고 했다. KT는 또 창원 LG에서 활약했던 신인왕 출신 가드 정성우와 첫해 보수 1억9000만원(연봉 1억7000만원·인센티브 2000만원), 계약기간 3년에 도장을 찍었다.



홍현우 감독 동강대 야구부, 전국체전 광주시 대표 확정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 야구부가 오는 10월 경북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 광주시 대표로 출전한다. 20일 동강대에 따르면 해태타이거즈 출신 홍현우 감독이 이끄는 대학 야구부는 이날 군산월명종합경기장에서 열린 2021 KUSF(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대학야구 U-리그 E조 최종전에서 세한대에 9대 2, 8회 콜드게임 승리를 거뒀다. 동강대는 조별예선 6승2패로 원광대에 이어 2위를 차지하며 U리그 왕중왕전 진출에 이어 올 전국체전 출전까지 확정했다.

2019년 제100회 전국체전에서 8강에 진출한 동강대는 올해 전국체전에서는 메달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홍현우 감독은 “지난 전국체전에서는 세종시 대표인 홍익대와 8강전이 우천으로 취소돼 아쉽게 4-5 추첨 패로 졌다”며 “올 해 선발진을 비롯한 투수진 전력에 탄탄해 메달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U리그 조별예선을 마친 동강대는 오는 6월18일부터 서울 목동구장에서 펼쳐질 U리그 왕중왕전에 이어 10월8일 경북 구미에서 개막하는 전국체전에 출전한다.

딕 파운드 IOC위원 “도쿄올림픽 개최 여부, 6월말까지 판단해야”

“재연기 선택지는 없다...개최·취소 두 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최장수 위원으로 재임 중인 딕 파운드 IOC위원은 6월 말까지 도쿄올림픽 개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지난 19일자 일본 지지통신과의 온라인 형식 인터뷰에서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취소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도쿄올림픽 개최에 대해 “일본에 오는 사람과 스폰서, TV, 라디오 등 일을 생각하

면 6월 말까지는 개최인지 중지(취소)인지 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파운드 위원은 도쿄올림픽 개최를 기대하면서도 재연기라는 선택지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재연기가 불가한 이유로는 추가적인 대회 비용 부담, 내년 2월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등 경기 일정을 들었다. 그는 “선택지는 두 개다. 개최나

중지냐”라고 강조했다. 도쿄올림픽 개최 중 선수촌과 경기장에서의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대응을 두고는 “일본의 공중위생 당국이 너무 위험해 속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IOC 등과 협의해 일분은 결단해야 한다”고 개최 도중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다. 아울러 도쿄올림픽 관중 수용에 대해서는 “상한 없이 (개최를) 할 수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용인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

뉴시스